

해외의약뉴스

40세 미만의 대상포진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요

최근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대상포진 환자에서 수년 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0세 이전에 대상포진이 발생한 피험자들은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에 비교하였을 때, 뇌졸중의 위험이 74% 높게 나타났다. 미세뇌일혈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2.4배 높았으며, 심장마비의 위험도 50% 증가하였다. 반면, 40세 이후에 대상포진이 발생한 피험자들은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마비와 미세뇌일혈(mini-strokes)의 위험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키워드

대상포진, 뇌졸중

최근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대상포진 환자에서 수년 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0세 이상의 대상포진 환자에서는 뇌졸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40세 미만 환자에서는 심장마비와 일과성 허혈성 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TIA)의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연구의 주저자인 Judith Breuer 박사¹⁾는 '40세 이전에 대상포진을 앓은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본 결과, 대상포진을 앓은 사람은 수년 후 뇌졸중과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 발생할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같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더욱 흔하게 발생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젊은 성인에서 대상포진과 뇌졸중 발생 위험성의 증가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수두에 걸린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 신경을 따라 이동하여 신경절에 잠복하게 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에서 바이러스가 활동을 재개하여 대상포진이 발생하게 된다.

1) A professor of virology and head of infection and immunity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in England

또한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한다거나 HIV, 암과 같이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경우 대상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상포진은 보통 신체의 한쪽 부분에 통증을 동반한 붉은 반점이 나타나며, 붉은 반점이 생기기 전에 통증, 가려움, 따끔거리는 증상을 동반한다.

이 연구의 배경에 따르면 뇌졸중의 위험은 대상포진 발생 기간 동안 증가된다. Breuer 박사와 연구진은 증가된 뇌졸중 발생위험이 대상포진 발생 기간보다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진은 영국의 106,000명 이상의 대상포진 환자를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이 동일한 213,000명의 대조군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참여한 대상포진 환자들은 대상포진 발생 이후 적어도 평균 6년 이상, 최대 24년이 경과된 환자들이었다.

흡연,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병, 심장질환, 비만과 같이 뇌졸중 및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통제하였다.

연구결과, 40세 이후에 대상포진이 발생한 피험자들은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마비와 미세뇌일혈(mini-strokes)의 위험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40세 이전에 대상포진이 발생한 피험자들은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에 비교하였을 때, 뇌졸중의 위험이 74% 높게 나타났다. 미세뇌일혈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2.4배 높았으며, 심장마비의 위험도 50% 증가하였다.

Breuer 박사는 대상포진이 뇌졸중, 미세뇌일혈 또는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대상포진이 특정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으로, 뇌졸중 또는 심장마비와 같은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염증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상포진으로 인한 뇌졸중 발생의 위험 증가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Kenneth Bromberg 박사²⁾는 ‘40세 이전의 환자들에게서 위험이 증가한 원인은 혼란변수(confounding factors) 때문이다. 40세 이상의 환자들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요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위험요인들을 살펴보면 대상포진은 크게 중요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고 전했다.

그리고 Len Horovitz 박사³⁾는 ‘이번 연구를 통해 40세 미만에서의 뇌졸중과 대상포진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그러나 기전이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2) A director of the Vaccine Research Center at the Brooklyn Hospital Center in New York City

3) An internal medicine physician at Lenox Hill Hospital in New York City

연구 저자인 Breuer 박사 또한 뇌졸중 위험 증가에 대한 대상포진 백신 접종의 영향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40세 이전에 대상포진이 발생한 경우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상 수치와 같은 뇌졸중 및 심장마비의 위험 요인들을 검사할 것을 권장하였다.

■ 원문정보 ■

<http://consumer.healthday.com/cardiovascular-health-information-20/heart-attack-news-357/emb-till-4-stroke-risk-increased-in-young-adults-who-ve-had-shingles-683522.html>